일송정 가는 길 성역화 사업 추진

박영록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총재

"일송정 가는 좁은 비포장길, 반성해야"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가곡 '선구자'에서 익숙한 일송정(一松亭)은 일제 시대 만주 벌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독립 지사들의 마음의 기둥이다.

잊어도 될 과거와 그래서는 안 되는 과거가 있다면, 일송정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조국 강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다. 때문에 나무에게 영혼이 있다면 일제 시대 만주의 일송정만큼 아픔과 인내, 불굴의 끈기를 알고 있는 나무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전후 폐허의 조국을 복원한 지 불과 반세기 만에 '월드컵 개최국 코리아'로 급성장한 우리에게 일제 시대, 독립 운동, 해방 등의 단어는 너무 빨리 잊혀져가고 있는 듯하다.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총재 박영록)가 추진 중인 중국 용정시 근교에 위치한 일송정 가는 길에 대한 성역화 사업은 그래서 반갑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1956년 원주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당 최고위원 등을 거친 4선 의원 출신으로 팔순을 맞은 박영록 총재는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계의 원로로서 헌신할 분야라는 신념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힌다.

박 총재는 일송정 가는 길 성역화 사업을 "우리 민족의 자존과 긍지로서 민족 독립 운동의 중심인 역사 유적지를 복원하는 일"이라며 "일제 치하에서 독립군의 흔적을 보존해 항일 독립 운동의 의미와 한민족의 기상을 되살리고 싶다"고 말한다.

비암산 북쪽 벼랑 꼭대기에서 해암강을 굽어보던 일송정은 원래 정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됐다.

1920년, 일송정에 대한 조선인들의 찬송이 높아가고 눈보라치는 엄동설한에도 더욱 싱싱하게 자라자 일제는 일송정 원가지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 후추씨를 밀어 넣고 대못을 박아 봉해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일송정이 시들기 시작하더니 1938년에 이르러서는 영영 말라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반세기도 훌쩍 뛰어넘은 오늘날 용정의 몇몇 인사들에 의해 소나무 한 그루가 옮겨 심어져 있고 또 정자도 만들어져 당시의 그 역사가 새롭게 기억되고 있다.

"만주 지역의 독립 운동은 한국 민족 운동의 주요한 흐름이며, 이후 민족 해방과 조 국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박 총재는 "그러나 아직까지 일송정 가는 길이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개탄한다.

그는 일송정 가는 길 성역화 사업의 첫 단계로 일송정 가는 길 포장을, 다음 단계로는 주변 공원화 사업과 기념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 정부는 취지를 십분 이해해 이 사업을 흔쾌히 수락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국 용정시측과 우리 건설업계가 유대를 맺는 계기가 되어 장기적으로 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는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멀리 만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눈앞에서 보지 못해서인지, '민족 정기 수립'이라는 대의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듯, 모금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 총재는 이에 대해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각계의 지원에 힘입어 훌륭하게 사업을 완수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보인다.

한편, 박영록 총재는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고비사막 녹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영록 총재는 "팔순에 이르러 세상을 바라보니 결국 민족의 과제는 뿌리를 소중히 하는 것과 상생의 철학이더라"고 말을 맺는다.

정숙진 · 기자 · sjeong@cak.or.kr